

총장-뉴스레터 - 66 (2023-10-13)

출 9 장 13 절-10 장 29 절 (우박-메뚜기-흑암 재앙)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출애굽기 10:28)

하나님께서서는 재앙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신다. 본문은 9:20 에서 그 '두려워 하는 자들'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중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바로와 함께 친히 목격한 관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반대로 이 말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많은 재앙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하들도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로 볼 때 애굽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박 재앙 (Hail plague)

우박과 뇌성이 함께 내리는 것이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리는 것 같았다. 수많은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천둥이 동반되고 번개가 몰아침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우박이 아니라 마치 불꽃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한다. 더욱이 '맹렬하니'에 해당하는 '카베드' 가 '심하다', '무겁다' 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박 덩어리가 매우 크고 무거웠다는 것을 암시해 주며 이는 곧 당시 애굽에 내려진 우박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박 재앙은 실제로 바로의 마음에 적중하여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잠깐 뿐이었다. 한편 이러한 우박 재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곱 대접의 재앙 중 일곱번째의 재앙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메뚜기 재앙 (Locusts plague)

늦곡식은 한 두달 늦게 익는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은 아직 남아 있다. 15 절에 '어둡게 되었고'로 번역된 '하테흐와크' 는 '깜깜하다' (암 8:9), '어둡다' (사 5:30)란 뜻을 가진다. 따라서 이는 애굽 모든 땅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되자 곧 어두워졌다는 의미이다. 애굽 모든 땅을 메뚜기가 새까맣게 뒤덮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다' 에 해당하는 '야타르'는 본문에서 '남겨지다' (수 11:22)란 뜻이며 강한 부정과 금지를 뜻하는 '로' 와 함께 쓰여져 '조금도 없음' 을 의미한다. 이는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입힌 피해의 정도를 일컫는 말로 애굽 땅 전체에 푸른색을 띤 식물이 조금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는 곧 사람이나 짐승이 먹어야 할 나물과 채소 및 나무의 열매들이 모조리 다 없어졌다는 말로서 애굽 땅 전체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이미 초래 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덮치는 메뚜기 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매질' 가운데 하나이다. 바로의 범죄 고백, 바로를 위한 모세의 기도, 바로가 다시 강박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아직도 끝은 예상할 수 없다.

어두움 재앙 (Darkness plague)

애굽 사람들이 '자리로부터 결코 일어나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굽 사람들이 잠만 자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외출이나 모든 외부활동을 일체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애굽 땅에 임한 질은 흑암으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질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조성된 말할 수 없는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흑암이 우박이나 메뚜기보다는 적은 재앙으로 보일 수 있지만, 흑암을 '표징'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오히려 재앙이 한층 커짐을 뜻한다. 이 재앙의 흑암은 보통 밤과 다른 뜻을 가진 어둠으로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창조 이전의 혼돈상태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날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흑암 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듯이, 구약성경에서 빛은 그 자체를 상징한다.

생각하기

3 일 동안이나 애굽 전역에 깔린 질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볼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이들의 활동 마비는 곧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밀려 들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이제 곧 있을 애굽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서막이기도 하다.

바로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처럼 처신하여 모세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보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릴 때 쓰신 표현과 같다. 모세의 대답에는 요구와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출애굽의 날이 다가왔다는 확신이 표현되어 있다.